

Since Oct. 10, 2004
해외 한인 장로회

Church of the Lord

하나님의 사랑교회
Jan. 25, 2026 (통권 1091호)



오늘의 말씀
“오직 그리스도만”

[요 14:6]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담임목사 정 석 진

David Seokjin Chung / Senior Pastor
Cell 551.999.5358
pastor.ds.chung@gmail.com

5 Old Dock Rd.
Alpine, NJ 07620
Tel. 845.398.0691, 201.767.1004
Fax. 845.398.1365
www.churchofthelord.org

이제 우리는 이번 Five Solas Series의 네번째 주제에 당도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Sola Scriptura; Sola Gratia; Sola Fide까지 함께 했습니다. Sola는 형용사이고, 라틴어는 형용사가 수식하는 명사의 성과 수와 격에 따라 바뀝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해 온 Scriptura, Gratia, Fide는 모두 여성 명사들이었기 때문에 Sola였고, 오늘 우리가 다루는 Christus는 남성명사이기 때문에 Solus로 변화된 것입니다. 오늘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서론 ~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면 그것은 어떤 유익하고 재미있고 감동적인 스토리라 해도 복음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떠난 순간 교회가 아닙니다. 복음도 예수님이 중심에 계실 때만 복음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종교개혁의 네 번째 Sola는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충분성의 선포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당신 자신에 대해 첫째로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 하십니다.

[요 14:6]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세상은 다원주의적 세상입니다. 사람들은 절대 진리를 부정하고 변칙적인 논리들로 진리를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다원주의적 세상 속에서 “오직”이라는 단어는 절대적인 도전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오해하면 안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좋은 길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길이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George Müller는 19세기 영국 브리스톨에서 수천 명의 고아를 돌본 사람입니다. 그의 고아원 아이들 중 많은 아이들의 고백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법을 말이지 아니라 삶으로 배웠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루는 어떤 아이가 물었습니다. “아저씨,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우리가 배고플 때 어떻게 우리를 아세요?” George Müller는 그 아이에게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야”라고 설명하지 않았답니다. 그는 그 배고픈 아이들과 함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실제로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아이는 나중에 고백했답니다. “나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배운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길을 설명해 주는 분이 아니라, 삶 속에서 길이 되어 주시는 분입니다.

Solus Christus가 개혁신교회의 기둥인 것은,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행 4:12]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산헤드린 앞에서 베드로가 담대히 외쳤습니다. 다른 이름 안에는 구원이 없다고, 종교적 선행, 도덕, 철학, 그 어떤 종교적 노력도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늘날에 와서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인간의 구원을 위한 여러가지 길 중에 예수님이, 그의 십자가가 한 가지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종교가 구원으로 가는 길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히 예수님만이, 그리고 그의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유일한 방식임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진리가 예수님만이 유일한 진리라는 선언입니다.

[요 14:6]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진리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ἀλήθεια(alêtheia)]를 사용하십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숨겨지지 않은 것; 드러난 실체; 거짓이 제거된 참”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헬라어에서 ἀ라는 부정접두사가 붙으면 “~~이 아니다”라는 부정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λήθη]는 “망각, 가림”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ἀλήθεια(alêtheia)]는 “숨겨지지 않았다, 가려지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이 피부에 확 와 닿게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가짜가 아닌 진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이 단어가 멋지게 쓰여진 곳이 바로 우리가 이제 곧 새벽예배를 통해 배우게 될 다락방 설교에서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요 15:1]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여기 “나는 참 포도나무요”라는 구절을 헬라어 성경에서 보면, “Ὁ γὼ εἰμι ἡ ἀμπελος ἡ ἀληθινή”입니다. 여기 [ἀμπελος (암펠로스)]는 포도나무이고, [ἀληθινή(알레띠네)]는 진짜(genuine)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일관되게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비유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언들이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실패한 포도원이라는 것입니다.

[사 5:4]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이고

[렘 2:21]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 됨이나 심지어 시편 80편에서는 실패한 포도원 이스라엘의 울타리를 하나님께서 걷어 내시고,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게 하셨다고 까지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에서 끊임없이 선포되어 온 포도나무 언약의 진정한 성취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 하십니다. 이 [ἀληθινός (alēthinos)]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언약의 실체이며, 구약의 모형들이 가리키던 것들의 실체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성공하지 못한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언약의 포도나무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율법 중심의 언약에서, 연합 중심 언약으로의 전환을 뜻합니다. 구약에서는 “율법을 지키면 산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으리라” 하십니다. 언약 성취의 조건이 행위로부터 연합, 즉 존재의 변화로 이동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열매는 조건이 아니고 결과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주일 다루었던 Sola Fide와 정확히 연결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는 예수님의 약속을 따라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는 열매를 절로 맺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 14:6]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에서 “나는 생명이다”는 [ἐγώ εἰμι ἡ ζωὴ]입니다.

헬라어에는 “생명”을 뜻하는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βίος(bios)]입니다. 이것은 “생물학적 생존, 삶의 기간, 생활 방식”등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사용하신 [ζωὴ(zōē)]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흘러오는 생명,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뜻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항상 이 [ζωὴ(zōē)]를 사용하셨습니다. [ζωὴ(zōē)]는 “살아 있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요 1:4]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 10:10]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 11:25]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께서 길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길이시듯, 진리를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진리이시듯,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기독교 신앙이 생명의 일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봅시다. 우선 이 생명의 영원성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은 “죽은 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시작되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는 벌써 이 영원한 생명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은 단순히 더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우리를 개선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 훈련으로 우리를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죄로 죽었던 우리 영혼 속에 예수님의 생명을 넣어
주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써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생명의
일입니다.

이 생명의 근원은 오직 우리 구주 예수님입니다. 이 생명은 오직
예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며” 다른 어떤 매개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 5:26]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들 안에 있는 이 생명이 흘러나오는 통로는 오직 믿음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 주일에 배운 Sola Fide의 의미입니다. 다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요 7:37~38]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생명이 흘러나오는 근원이신 예수님과 그
생명을 공급 받는 우리 사이에 믿음 외에 다른 어떤 매개체가
들어설 필요가 없고, 들어설 수도 없고, 들어설 자격을 가진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그리스도(Solus Christus)라는 교리를 개혁 교회의 신앙적
기둥으로 받아들여야 했던 이유입니다.**

중세 카톨릭 교회에 있어서 생명은 교회 시스템이 공급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고해성사; 연옥의 고통을 상쇄시키기 위한
보속행위들; 몸을 학대하는 고행; 이런 교회 시스템이 정하는
일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들로 제공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성도 사이에 성직자가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개혁교회의
신앙은 예수님과 사람 사이에 다른 중보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은 교회에 있지 않고, 제도에 있지 않고, 성례 자체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교회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시 생명의 자리로 돌려놓은
운동이었습니다. 중세 교회는 성도의 생명을 관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생명을 선물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이란 결국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개선시켜주는 분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의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십니다. 그를 믿을 때 우리는 이미 영생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어떤 매개체도 필요없습니다. 그분을 소유하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포인트입니다.

- A.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믿게 하소서.”
- B. “내 중심에 예수님만 모시게 하소서.”
- C.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할 기회를 열어 주소서.”
- D. “예수님의 사랑을 닮는 삶을 살게 하소서.”
- E. “목회자의 메시지에 오직 그리스도의 향기를 부어 주소서.”